

전북자치도, 올림픽 유치 뒤집기 '총력전' '비수도권 연대 카드' 먹힐까?

대한체육회 표심 확보 집중... 28일 의총서 결정
2032년 호주 브리즈번 올림픽 채택 계기로 유리해

'서울이나', '전북이나' 2036 하계 올림픽 국내 개최지 선정이 오는 28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자치도는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표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투표 권한을 가진 종목별 단체 및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 전북이 개최해야하는 의미를 설명하고 '전북'에 한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전북의 각 지자체와 의회에서도 전북 유치 쟁선지와 유치 건의안 채택 등을 통해서도 대한체육회를 전방위로 설득하는 모양새다.

이번 올림픽 개최는 국내 개최지 결정이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다.

서울은 2032년에 이어 이번 2036 올림픽을 재수한 입장이다.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을 재연하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대한체육회 선택을 넘어 IOC에

서 서울이 선정될 경우 세계에서 8번째로 올림픽을 2회 이상 개최한 도시로 남기도 한다.

하지만 서울이 이번에 선정될 경우 '또 서울', '스포츠 마저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오명이 남기도 한다.

전북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서 올림픽을 개최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서울에 비해 열악한 인프라 등이 약점으로 꼽히지만 2036년에는 새만금을 중점으론 RE100실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 등으로 이러한 부분을 대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여기에 부족한 시설을 보충하기 위한 묘안으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비수도권 연대' 카드를 통해 대구와 전남·광주, 충남 등 경기장을 활용해 올림픽을 치루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특히 지난 2032년 호주 브리즈번이 채택됨으로서 지방도시도 개최가 가능하다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어 전북에는 유리한 대목이다.

대한체육회 결정을 넘어 IOC에서도 전북이 채택된다면 하계올림픽을 복수도시에서 개최한 경험이 있는 국가 4번째에 이름을 올린다.

/뉴시스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 대한체육회 체육상 '최고 영예'

체육대상 수상받아

김민종 · 양지인 등은

경기부문 최우수상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종목에서 3관왕을 차지한 김우진(청주시청)이 대한체육회 체육상 최고의 영예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우진은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71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체육대상과 금메달(순금 10돈)이 각인된 표창패, 부상을 받았다.

김우진은 지난해 열린 파리 올림픽에서 남자 개인전과 남자 단체전, 혼성 단체전을 석권하며 사상 첫 올림픽 남자 양궁 3관왕을 달성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경기, 지도, 심판, 생활체육, 학교체육, 공로, 연구, 스포츠 가치 등 총 8개 부문에서 71명, 1개 단체가 상을 받았다.

경기 부문 최우수상은 파리 올림픽 유도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김민종(양평군청)과 파리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양지인(한국체대)에게 돌아갔다.

김미정 전 유도대표팀 감독과 장갑석 사격대표팀 감독은 지도자 부문 최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열린 제71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2024 파리하계올림픽 개인·단체·혼성 3관왕에 오른 양궁 김우진(사진 오른쪽)이 조현재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부터 체육대상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수상을 수상했다.

근대5종 성승민(한국체대)과 펜수영 신명준(경기도청), 소프트테니스 이민선(세종NH농협은행), 펜싱 전하영(서울시청), 양궁 전훈영(인천시청)은 경기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피겨 김재연(대한빙상경기연맹)과 복싱 임애지(화순군청), 수영 자유찬(대구시청) 등 11명은 경기 부문 장려

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 시상과 체육단체 후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메세나 부문의 수상도 함께 진행했다.

동계체전 최우수선수(MVP)는 스키 4관왕에 오른 정동현(하이원)이 차지했다.

정동현은 스키알파인 회전, 복합, 대

회전, 슈퍼대회전에서 우승하며 동계체전 4관왕에 등극했다.

대한럭비협회 후원사인 대상웨일즈와 대한수영연맹 후원사인 배럴은 메세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체육회는 1955년 대한체육회 체육상을 제정한 이래 체육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태권도 우수 선수들 무주서 스토브리그 훈련

지난달부터 두 달간 2회에 걸쳐
초·중·고등부, 대학부 63개팀 참가

'전국 태권도 우수선수(대한체육회 등록 선수)초청 스토브리그 훈련'이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무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 태권도 우수선수 초청 스토브리그 훈련'은 선수들의 실력과 체력 강화를 위해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무주군태권도협회(회장 이도우)가 지난 2020년부터 5회째 주관해 오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펼쳐질 훈련에는 고등부(17개 팀), 대학부(3개 팀), 해외(1개 팀, 호주주니어 대표) 등 총 21개 팀이 참여하며 선수들은 4일간 체력 강화를 위한 '인터벌 트레이닝'과 '서킷 프로그램', 그리고 실전 경험을 위한 토너먼트 시범경기에서 기량을 펼치게 된다.

무주군청 태권문화과 박규근 과장은 "전국 태권도 우수선수초청 훈련이 전국의 태권도 선수들에게 태권도 성지 무주를 알리고 선수로서 자긍심을 키우는 꿈의



장이 되고 있다"라며 "무주군 학교 태권도 선수들 또한 다양한 선수들과 훈련하며 동기부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해 평균 3억여 원의 직간접 효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월에도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19개 팀이 참가해 훈련을 펼쳤으며 무주군태권도협회 이도우 회장이 '전국태권도 우수선수 초청 스토브리그 훈련'의 무주군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무주군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익산 수도산스포츠센터 무료 시범 운영

내달 4~22일 '헬스장·수영장'

익산시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수도산스포츠센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수도산스포츠센터 정식 개관에 앞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수영장과 헬스장을 무료로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수도산스포츠센터는 수도산 공원 내 민간특례사업으로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953㎡의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는 헬스장과 수영장을 갖추고 있으며, 수영장은 성인풀(25m×15m×1.4m, 6대인)과 유아풀(6.5m×4m×0.5m)로 이뤄져 있다.

시범 운영 기간 헬스장은 평일 오전 1회(오전 9시 30분~11시 30분)와 오후 1회(오후 1시부터 5시 30분)에 각 30명까지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다. 수영장은 평일 오전 1회(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2회(오후 1시~3시, 오후 3시 30분~5시 30분)를 운영하고 각 회차당 50명까지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토요일은 3월 15일과 22일, 2회 운영한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사항을 보완하고 정식 개관일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수도산스포츠센터(063-859-4390~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